광주 유통업계 "고마워요 가정의 달"

어린이 날 등 황금연휴 겹쳐 화장품·의류 등 매출 11%↑

5월 들어 굳게 닫혔던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겹치는 가정의 달인데다, '황금연휴'가 겹친 덕분이다.

매출 증가세가 상품군별로 고르게 확산되고 있어 소비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황금연휴가 시작된 주말 매출이 작년 5월 첫 주말 (2~4일까지)에 비해 11%나 올랐다.

품목별로는 어버이날, 스승의날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명품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생활용품(가구·주방용품) 32%, 아웃도어 의류(등산용품 포함) 32%, 스포츠 용품 20%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모자, 선글라스, 손수건 등 액세서리 부문은 여름을 앞두고 판매호조를 보이며 매출이 10% 증가했다. 그간 침체됐던 의류도 여성이 6%, 남성이 5%씩 올랐다.

어린이 날을 앞두고 완구와 소형가전(광주신세계 이마트)은 10% 가량 매출이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5% 늘었다. 명품·화장품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구두·지갑 등 선물용 피혁제품은 11%로 매출이 두드러졌다.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선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특히 어린이 날을 앞두고 게임기, MP3, 전자사전 등이 인기를 끌면서 소형가전(18%) 판매가 급증했다.

이에 앞서 4월 한 달간 백화점들의 매출은 소폭 상승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각각 3.1%, 1%씩 늘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신종 플루 여파로 황금연휴 특수가 사라질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 덕분에 선물용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아동용품의 경우 의류부문은 판매가 저조했지만 어린이날 선물로 완구, 소형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종 플루' 이름 덕 봤나… 돼지고기값 다시 상승세

신종 인플루엔자의 이름이 '돼지 인플루엔자(SI)'에서 '인플루엔자A(H1N1)'로 바뀌면서 하양 곡선을 그리던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일 나주 축산물 공판장에 따르면 신종플루 출현 이후 폭락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명칭 변경 후 열린 첫 경매에서 지육(뼈에 살코기가 붙은 형태)의 시세가 kg당 4천454원으로 지난달 30일 3천188원에서 28.4%나 올랐다.

나주 축산물 공판장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 27일 4천732원에서 28일 4천173원, 29일 3천994원, 30일 3천188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대한양돈협회도 이날 돼지고기 가격이 4천244원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1일(3천581원)보다 15.6%나 올랐다.

나주 축산물 공판장 관계자는 "나들이철이라는 계절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명칭이 새롭게 바뀐 뒤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덜 느끼면서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 주택건설 실적 '최악'

1분기 인허가 지난해보다 36% 줄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남 주택 건설 실적이 지난해보다 3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4일 내놓은 '2009년 1분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허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공공부문 6천804가구, 민간부문 2만7천140가구 등 총 3만3천94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4만8천297가구에 비해 29.7% 줄어든 물량이다.

전남의 경우 1분기 인허가 물량이 948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1천491가구)에 견줘 36.4%가 감소했다. 전남 미분양 물량이 5천944가구에 달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도 지난 1분기 78만6천239㎡로 전년도 같은 기간(96만2천634㎡)보다 18.3% 감소했다.

광주는 다르다. 광주시는 올해 1분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1천328가구로, 지난해 1분기(170가구)보다 무려 781%나 폭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낙 물량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1월 광산구 우산동의 818세대 아파트 사업승인과 2월 광산구 흑석동의 510세대의 아파트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서 크게 늘었다.

광주시측은 그러나 "지난해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주택건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통상 분기별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3천~4천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득 33% 오를때 집값 12% 올랐다

최근 5년 광주·전남 분석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도시 근로자 소득 상승폭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이 집계한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과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아파트값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9만5천원으로 2003년의 294만원에 비해 32.5%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의 집값 상승률은 11.5%, 전남은 5%에 그쳐 소득 상승률에 못 미쳤다. 부산(10.2%), 대구(8.2%), 대전(5.6%), 경남(27.1%), 경북(27.6%), 강원(12.8%), 전북(23.1%), 충남(13.1%), 충북(24.3%), 제주(18.4%) 등의 집값 상승폭도 소득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다.

반면 서울(52.9%), 경기(50.6%), 인천(48.1%) 등의 집값 오름폭은 소득 상승폭보다 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업자 100만명 돌파"

윤증현 기재부 장관 전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실업자 숫자가 4월 통계에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월 고용통계에 실업자가 95만명에 실업률이 4%대가 됐고 청년 실업률은 8.8%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고 있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실업자를 구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민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아직 하강을 지속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추가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은행도 10억 달러 발행에 성공하고 다른 은행도 (발행을 위해) 나가 있다"며 "추가 발행은 하반기에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흔들리는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투자금을 환수하지만 경기 상승시에는 자본시장에 외화가 들어오는 만큼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20조 육박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47%로 작년 말보다 0.33% 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2007년 말 0.72%에서 작년 말 1.14%로 상승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잔액은 2007년 말 7조7천억 원에서 작년 말 14조7천억 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 3월 말에는 19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